제 401 호 1991년 11월 24일 창간 1999년 9월 19일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9년도 표어 ◈
"우리를 고치시는 그리스도"(마8:7)
◈ 4대 실천강령 ◈
1. 은혜 주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먼저 회개한다.
2. 고치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서로 위로한다.
3. 보혜사 성령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바친다.
4.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발 행 인: 이종윤 발 행 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 - 3 전화 (02) 517 - 7651 ~ 5 팩스 (02) 512 - 1225 http://seoulchurch.or.kr

바자 이번 주부터 물품 접수 시작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바자가 10월 6일(수)부터 8일(금)까지 3일간 우리 교회당에서 열린다.

이번 바자의 목표 수익액은 각 교구별로 1억씩 총 12억으로 기증품인 경우 바자에 출품된 것은모두 건축헌금으로 받으며 새로이 드리는 건축헌금(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현금), 작정헌금 등을 포함하게 된다.

바자준비위원회에서는 이번 주부터 물품을 접수한다. 취급품목은 각종 기증품(의류, 잡화, 가구, 전자제품, 장난감, 화장품, 악기, 서적, 컴퓨터와 주변기기, 운동기구, 침구, 식품, 자동차, 상품권, 회원권, 소장품, 작품 등)과 위탁상품 및 자매교회 농 · 수특산품이다. 기증품인 경우 신제품에서 사용하던 것까지 상품화 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각 교구에서 출품한 물품은 각 교구 점포에서 판매한다. 귀금속 및 서예품 등 특수상품은 특판점에서 판매하되 판매대금은 출품교구로 종합된다. 지난 주간 이미 기증을 받은 가전제품은 바자 기간 중 판매되는 금액의 전액을 건축헌금으로 드리기로 했는데 판매금액은 해당 교구의 수익금으로 계산된다.

물품 기증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사무국으로 하면된다.

바자 기간 중 식당은 옥탑층과 교회당 앞에서 운영된다. 주관은 여전도회 연합회에서 하게 되며 식당의 수익금은 여전도회연합회 명의로 건축헌금으로 드리게 된다. 식당 운영에 관한 세부 운영계획은 26일(주일)에 확정될 예정이다.

'99 바자준비위원회에서는 오늘 III부 예배 후 1층 예배실에서 기도회와 실행위원회를 개최한다. '99바자준비위원회 임역원 및 실행위원 전원의 참석이 요망된다.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바자준비위원은 지난 주 게재된 바와 같으며 실행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기획부= 맹선재 임상헌 신순우
▶관리부= 오형철 최용걸 서춘식 이계홍 조철기 오승민 박연순 최금자 김정란 이성애 한정아
▶시설부= 이상호 김형택 이관규 이승우 장양일 한주찬 이인근 김규태 오유식 이양칠 김선희 권오준
▶판매부= 우지원 오광환 이남성 최재규 허상한 유명석 김숙자 한명순 김은숙 여전도회장
▶섭외부= 이태상 이보우 곽동희 김금준 이동만
▶홍보부= 신용식 정동호 신동기 이운진 나소정
▶재정부= 홍성주 김영주 박두영 원복순 임옥균 조원장
▶1, 2점포= 나종영 홍정선 허상한 채항석 한주찬 주경자 정연택 양옥자 정하자 전완순 한정아 최재춘 임송자 이봉주 한건석 이영희 고후덕 박정순 이봉구 최양혜 여영숙 강풍자 남태순 박경희 고정숙 이채봉 이연숙 송두심 이은희 이윤정 안정옥 김수호 이영자 오충례 조영자 이자혁 주경자 배은희 김진희 김우숙 주정희 정경옥 허현숙 이종심
▶3, 4점포= 김헌영 김인숙 윤복순 김두희 김현정 강영자 백혜숙 문형미 노인숙 임희춘 심화숙 안분선 최근자 김연숙 신동기 최현인 주화인 김영란 정경자 유복달 박은수
▶5, 6점포= 김남옥 박영옥 이영희 이인근 김화중 이정자 박창희 정정숙
▶7, 8점포= 윤운식 김광욱 이태원 안인호 강애자 강경신 김숙행 김영식 서영희 여현진 함은희 황보추자 이명신
▶9, 10점포 = 이남성 유신 한종우 권오준 권장철 임낙식 조상희 이순영 박연순 황노전 박순단 전용순 권혁진 김진숙 심영숙 김신영 김성준 김용수 백정순 서창원
▶11, 12점포= 최재규 김관홍 이영칠 오성애 선연자 황인숙 김진숙 서희숙 이용자 김차랑 조선영 김양숙 서경숙 이강인
▶위탁점포= 곽동희 천정화 김혜영
▶특판점포= 이관규 김시환 전용순 최영란 김순자 권순단 윤숙지 이순영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마쳐

개정개역판 공식사용

대한예수교장로회 제 84회 총회가 서울 영락교회당에서 13일(월)부터 17일(토)까지 총대 1500명이 모여 "인류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은혜롭게 마쳤다.

이번 총회에서는 권사 안수문제가 거론되었으며 개역개정판 공식 사용, 비전2020운동과 탈북자보호 UN청원운동 등을 교단적으로 하기로 했다.

그리고 학습제도는 폐지하고 유아세례를 만 2세 미만으로 하기로 했으며 권사의 연령은 30세 이상, 장로는 40세 이상으로 헌법을 개정했다.

다락방 모임 · 성경대학 추석 기간 중 쉽니다

추석연휴인 23일(목)부터 25일(토)까지 출타하는 가정이 많아 이번 주 다락방 모임은 가지지 않는다.

한편 서울성경대학 강좌 중 목 · 금요일에 강의되는 느헤미야반, 음악교실, 리더양성반 등도 이번 주에는 휴강한다.

성경암송대회 11월 개최

범위는 시편 119편

서울교회 설립 제 8주년을 기념하는 전교인 성경암송대회가 11월 중에 개최된다. 암송대회 진행은 교회학교별 토너먼트 방식으로 예선을 거쳐 본선, 결선 등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올해 성경암송대회의 암송 범위는 시편 119편이다.

이번 주간에는 우리 고유의 명절이라 불리우는 추석을 맞게 된다.

이 때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할 일이 있다. 조상에 대한 제사의 문제이다. 조상숭배 제도는 12세기 중국의 주희가 만든 성리학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 이는 성경적으로 보면 우상숭배요,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의 유교 철학에서 온 외래문화의 유산이며, 철학적으로 보면 과거지향적인 순환적 시간관에 기인된 것이므로 자연주의적 세계관과 평민을 다스리기 위한 사회 정치적 산물이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에 대해 바른 자세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한 해의 결실을 감사하며 모처럼 한자리에서 만나는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되는 추석 연휴, 하나님께 예배하며 가족을 주심을 감사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여기에 예배 모범을 제시한다.

예배 순서

인도: 가족 중 어른

묵 도		다 함 께
성 시	시편 126편 5 - 6절	인 도 자
찬 송	312장	다 함 께
기 도(또는 사도신경)		가족중(다함께)
성경봉독	갈라디아서 6장 7 - 10절	인 도 자
메시지	"심는 것과 거두는 것"	인 도 자
찬 송	260장	다 함 께
주기도문		다 함 께

추석,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

메시지

심는 것과 거두는 것

갈라디아서 6장 7 - 10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추석을 맞이하여 올해도 풍년을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 심고 거두는 원리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심고 거두는 것은 농사의 원리지만 마치 낮과 밤이 농부들에만 있는 것이 아니듯 우리 모두의 삶에는 심고 거두는 원리가 적용됩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창8:22).

우리 모두가 심는 자요 거두는 자로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1.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의 원리를 생각합니다

이 진리는 불교의 인과응보설과는 다릅니다. 복음의 원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가 말하는 심고 거두는 것은 신앙에 뿌리를 두는가의 여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불신앙의 사람이요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신앙적인 사람으로 그들은 각각 쓴뿌리와 영생의 열매를 거둔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 원리는 품종과 질과 양에 대해 언급한 것입니다. 즉 콩 심은 데 콩이 나며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게 됩니다.

한편 이 진리는 시간과 공간의 격차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지금 심은 것을 나중에 결실하거나 이곳에서 행한 일에 대해 다른 곳에서 거두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달란트 비유를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종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했던 것입니다. 수고의 땀은 흘리지도 않고 결실을 기대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일이며 게으른 것은 악한 것이며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상 가진 것도, 이루어 놓은 것도 없으면서 스스로 속기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과 미혹하는 일들이 사방에 있습니다(막13:5). 아무 생각없이 뿌린 씨가 그에 상응한 것으로 시공간을 건너 결실할 날이 있을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히 행하며 우리의 언행을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3.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만물을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모두 아시며 우리 죄에 대해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영원히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원리 앞에서 우리는 은총으로 주어지는 열매에 대해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얻은 열매가 기대한 것과 다르다고, 기대한 것보다 적다고, 좋지 않은 열매라고 불평과 원망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행이란 적선의 개념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착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은혜로우심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어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그리해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겸손히 심는 자에게 의의 열매를 기쁨으로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열매에 감사하면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신 말씀을 저주의 음성이 아닌 축복의 음성으로 듣고 더욱 힘써 믿음으로 심고 영생을 거두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번 연휴 이렇게

적극적인 전도의 기회로

김재술 (집사, 제 4교구)

해마다 이맘때면 아들과 딸이 있는 호주로 가기 위해 아내의 눈치를 살피며 짐을 싸곤 했다. 때로는 삶의 재충전의 좋은 기회가 되어 이때가 은근히 기다려지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좀 달라졌다. 아들이 군에 입대하여 마침 휴가를 받아 나오기에 고향(논산 은진면 방출리)으로 아내와 함께 가기로 한 것이다. 날로 듬직해지는 모습의 아들과 함께 동생네 가족과 많은 친구, 친척들이 있는 고향으로 간다는 것은 여간 가슴 설레는 일이 아니다. 자식에게 부모의 뿌리를 보여주고 어른들께 인사드리고 성묘도 하고 농촌의 생활에 잠시나마 젖어 본다는 것 자체가 삶의 큰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보는 것이다.

집안의 제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조용히 묵도로 지내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되고 있고 올해는 적극적인 전도의 기회로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들과 함께 내려가기에 어느 추석 명절보다 많은 기대를 가지고 귀향하게 된다.

뿌리를 찾고 지나간 시간을 뒤돌아 볼 수 있는 추석 명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온 가족이 오가는 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들도 군 복무를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줄 믿고 또 멀리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딸과도 기도로 교감하는 멋진 결실의 계절이 되었으면 한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자유시간으로

오혜진(대학부)

수업이 없는 자유 시간. 정해진 일정들을 잠시 잊어도 되는 시간.

추석 연휴가 내게 주는 의미다. 젊은 이가 뭐 그리 쉴 시간이 필요하냐고 어른들은 생각하겠지만 학교 수업과 전공 공부 그밖의 일 때문에 바쁘게 돌아가는 생활 속에서 나의 진짜 모습을 잃어버리고 지낼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뭔가에 쫓기는듯한 기분에서부터 자유로운 채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한 번 고민해보고도 싶고 나의 가족, 친구, 이웃에 대한 여러 가지 기억들을 되집으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도 생각해 보고 싶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게 소명으로 주실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 하루가 모두 감사하지만 내게는 추석 연휴야 말로 특별한 감사의 제목이다.

가족에게 향하신 주의 은혜 감사하며

조봉환 (권사, 제1권사회)

단 몇 해전만 해도 명절이 되면 적지 않은 수의 자녀손들이 빠짐없이 모여 집안 한가득 북적였다. 가족들은 모이기 며칠전부터 서로 연락을 하고 모처럼 형제들, 동서들, 사촌들의 얼굴을 볼 생각에 서로 설레어 하는 모습들도 볼 수 있었다. 때론 불편한 잠자리를 불사하고 한 집에 모여 며칠씩 이야기 꽃을 피우기도 했다. 부모 눈앞에 왔다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효도라 했던가. 자식들을 모두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리 흐뭇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점차 빠짐없이 모두 모이는 일이 참으로 어려워지고 있다. 군대 간 손자 녀석, 입시 준비에 바쁜 손녀, 외국에 나가 있는 딸, 직업상 혹은 섬기고 있는 교회 일로 참석 못하는 아들 내외…. 그나마 예전처럼 며칠씩 얼굴을 보기는 커녕 모두 바빠 한끼 식사나 겨우 모여서 하고 우루루 제 집으로 가 버리곤 해서 모였다 헤어지면 오히려 허전함이 더욱 크게 밀려오기도 한다.

그래도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 드릴 수 밖에 없다. 명절마저도 여유있게 보낼 수 없을만큼 복잡한 세상 살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식구들 하나 하나를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한 세대가 가고 새로운 세대가 오는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우리 가족 각 사람 가운데 보이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가족 모두를 하나되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가족들이 한 상에 둘러 앉을 때마다 내 마음 속 깊은 곳에서부터 "지금까지 지내 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는 찬송을 드리게 된다.

명절을 지내는 모양은 해마다 변해가고 내 곁사람은 날마다 후패해 가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우리 후손 대대로 변함없기를 기도해 본다.

●순례 길에 만난 사람 - 고경선 목사●

늘 선교하는 교회상을 그려봅니다

"활발한 교회 활동, 기쁨의 봉사, 충만한 말씀 등 생동하는 교회를 느꼈습니다."

주일 찬양예배 시간을 앞두고 4층 교역자실에서 만난 고경선 목사는 부목사로 부임한 3개월 동안의 소감을 이렇게 요약했다. 고 목사는 현재 5, 6, 7, 8교구와 청년부, 스데반회, 찬양위원회 등을 담당하고 있다.

- 어떤 점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까?

"늘 선교하는 교회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제가 청년부를 맡고있습니다만 특히 청년들에 대한 선교는 교회의 미래에 무척 중요합니다. 이들에 대한 선교와 양육의 결과는 바로 10년뒤 우리 교회의 모습에 반영될 것입니다. 청년부에서 새천년, 새성전 시대를 앞두고 강남지역 청년들을 구원하고자 추진하는 SKY운동은 바로 이런 노력의 일환입니다."

- 혹 교회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십니까?

"교회는 늘 회개하고 새로와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할 일이 많은 교회입니다. 비전2020운동, 목회자세미나 등 많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월요일 아침마다 김밥을 싸시는 권사님들, 성경공부를 위해 바쁜 생활 중에서도 빠지지 않고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 이 모든 것이 귀하게 쓰임받는 서울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 어떻게 목회의 길로 들게 되셨는지.

"대학 4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고시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거역할 수 없는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돌이켜 보면 당시에도 버리는 것이 쉽지는 않았던 것같습니다만 결단을 내렸습니다."

서울에 친가와 처가가 있는 관계로 추석은 서울에서 보낸다는 고 목사는 신대원을 마치고 성경모임을 갖던 중 만난 이은희 사모와 4살배기 아들 성민군 등 3식구가 함께 살고 있다. 한편 고 목사는 2달 뒤면 또 식구가 늘어난다.

길동무

반갑고 부끄러운 이야기

무엇이 우리 주변의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까? 성적을 높이기 위해 치루는 필답시험이라면 간단히 대답할 수 있을 질문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어떤 이는 지하철에서 종종 만나는 "예수 천당" 전도자들을 보노라면 쉽게 생각이 정리되지 않더라는 말도 한다. 이 사람의 고백을 들어보자.

* * *

"지난 주 오랜 만에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동료로 일하던 이 친구는 작년 남쪽 지방의 한 대학에서 자리를 잡고 새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한 식당에서 자리를 같이 하자 말자 대뜸 하는 이 친구의 말이 "너가 전도하지 못했던 내가 요즘 교회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감을 잡는데 잠깐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그간의 사정을 떠올리곤 곧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아는 그동안의 그 친구는 집의 문 위쪽에 각종 부적을 붙여 놓았었고 불교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말로는 다른 종교에 대해 비교적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긴 했지만 정작 본인은 기성 교회에 대해 엄격한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저지른 각종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에 대한 사례를 끊임없이 늘어놓곤 했었던 것입니다.

사실 교인 일천만 명과 의인 열 사람을 저울질해야 할지도 모를 요즘에야 그런 지적이 전혀 새로울 것은 없었습니다. '교회와 직장에서의 기준이 다른 사람'이라는 지적은 오히려 순진하며 '세상적인 잣대가 교회에서도 그대로 통용되지 않는다면 감사할 뿐'이라는 오만한 생각마저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화가 다른 곳에서 왔습니다. 복잡한 생활을 요구하던 서울에서의 직장을 정리한 그는 고향 부근에 돌아가 본인이 평소에 그리던 일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나 바로 직전, 허리 통증을 호소하던 부인이 진료차 병원에 갔다가 두 발로 걸어 나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척추에 이상이 생겨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을 했으나 적절한 시점을 놓쳐 하반신에 마비가 왔던 것이었습니다.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는 말을 듣고 그는 고향으로 내려가 한 병원을 찾게 됐습니다. 기독교 계통의 이 병원에서 상담을 받은 그는 전적으로 그곳의 담당 의사를 신뢰하게 됐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한지 단 5분만에 그 의사에게서 풍겨나오는 온화함과 믿음직함에 완전히 매료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병원에서 부인은 다시 수술을 받았고 몇 주 몇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움직일 수도 있게 됐습니다.

이에 그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감사함에 넘쳐 하나님을 혼자 찾아 나서게 됐습니다. 집 인근에 있는 한 개척교회에 나가고 있는 이 친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국문학을 가르치고 있지만 아직은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기가 힘들다고 하면서도 꾸준히 성경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모진 가정의 시련을 통해 하나님을 찾은 그 친구를 보며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짧은 계획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에 앞서 그에게 하나님을 확실히 알려주지 못한 것에 대해 부끄러움이 컸습니다."

피택장로 내달 12일 고시

서울 강남노회는 피택장로 고시일을 10월 14일(목) 오전 10시 소망교회당에서 갖기로 했다.

예비공부일은 10월 8일(금)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모이며 신학생 지도위원회(신대원생에 한함) 모임은 10월 12일(화) 오후 6시 소망교회당에서 모인다. 그리고 강남 시찰회는 10월 5일(화) 오전 12시 현대교회당에서 모인다.

■동정■

* 이종윤 목사와 이영기 장로는 괌지역 기독실업인회(CBMC) 창립차 23일(목) 출국하여 25일(토) 귀국한다.

* 이만열 전도사(청년부 지도,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소장)는 10월 2일(토) 숙명여대에서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의 동향과 과제라는 주제의 학술심포지움을 갖는다.

* 오정수 장로(2교구)는 17일(금) 광진구 광장동에 LG중앙가전을 확장 이전하고 감사예배를 드렸다.(☎ 3437 - 4100)

* 박병수 집사(2교구)는 17일(금) 종로구 청진동에 씨드엘 통상(주)를 개업하고 감사예배를 드렸다.(☎732 - 3787)

* 김영희 · 이현정 성도(6교구) 가정이 득녀했다.

* 이번 주 식사는 이종윤 목사 · 홍순복 사모 가정에서 제공했다.

* 시온찬양대는 20일(월) 새예배당 건축을 위한 기도회 및 현장방문을 한다.

■교역자 연락처■

* 이성득	3446 - 8408	011 - 9038 - 9191
* 정윤돈	2242 - 8407	019 - 216 - 8407
* 고경선	2247 - 1527	011 - 9744 - 7161
* 이규정	517 - 7161	011 - 9061 - 7161
* 지혜영	595 - 9784	019 - 295 - 9784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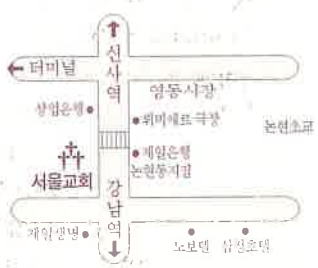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서울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바자를 위해
2. 서울성경대학과 목회자신학세미나를 위해
3. 투병 중인 성도들을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